



## 박지원

**박지원**(1737~1805)은 홍대용, 박제가 등과 함께 청나라의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 했던 **북학파**의 선두주자입니다. 생산수단, 문물제도와 기구, 상업업 발달 등 일상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. 당시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정치, 사회, 경제, 문화 등 다방면의 개혁을 논의했습니다.



###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?

□ □ □ □

1780년 박지원이 청나라 황제 건륭제의 칠순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사행을 다녀온 뒤 쓴 견문록입니다. 청나라의 실제 생활 모습과 문물제도 등을 조선에 소개하고, 그곳의 학자들과 교류한 소감을 남겼습니다. ‘열하’는 피서산장이라고 불린 건륭제의 여름 별궁이 있던 곳입니다.



## 수레

조선의 농업과 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기구나 농사방법도 중요했지만, 유통을 위한 운송수단의 발달이 필요했습니다. 당시 대부분의 육로 운반은 사람과 가축의 등에 짐을 저 물건을 운반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. 이에 기술개발과 상공업에 관심을 가졌던 박지원과



홍대용 등 □ □ □ 실학자들은

‘수레’의 사용과 그에 따른 도로 보급을 적극 주장했습니다

“백성의 살림살이가 이다지 가난함은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지 못하기 때문이다.”  
- 박지원 《열하일기》 가운데